

# 'AI 중심도시 광주'에 세계 석학·혁신기업 모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오는 15~16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적 인공지능(AI) 학술대회인 '글로벌 AI 컨퍼런스(AICON) 광주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AICON 광주 2025'는 산업·도시·시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공지능 전환(AI)의 물결이 광주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의 'The AX 웨이브(Wave), 광주(Gwangju)'를 주제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모두의 AI' 실현과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은 광주의 인공지능 미래 비전을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강기정 광주시장 환영사 ▲오상진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장 개회사 ▲AI 작곡과 피아노 협연 공연 등이 이어진다.

광주시와 인공지능기업 10개사는 15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광주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 15~16일 김대중센터서 'AICON 광주 2025' 개최  
'인공지능전환(AI) 물결 광주에서' 주제로 열린 강연·토론  
AI반도체·헬스케어 등 최신기술 공유... AI혁신 연계 전시회  
AI기업 10개사와 MOU...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전략 논의

컨퍼런스의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은 국내·외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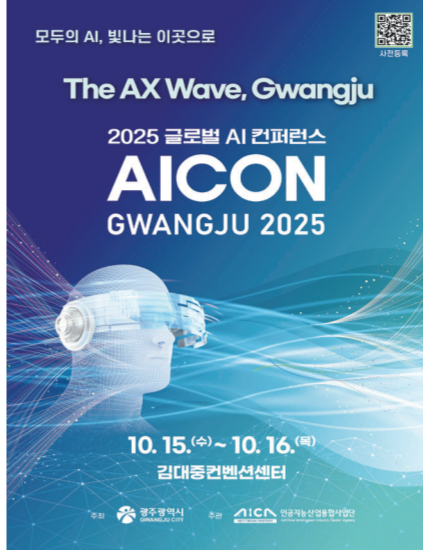
인공지능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국내 AI산업 육성 정책과 현황'을,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최초 정립한 세계적 명문대학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유명진 교수가 '생태계로서의 AI'에 대해 기조강연한다.

특별강연에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장과 중국 인공지능 분야의 명문대학인 북경우전대학교 차오 위안위안 교수, 레오 지양 싱가포르 그라운드(Ground) AI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중국·싱가포르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산업 동향을 소개한다.

특별좌담회에서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X 실증벨리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세션 I~VII 토론회에서는 AI 혁신기업과 반도체,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이 반도체 팹리스(설계)·모빌리티·문화콘텐츠·디지털헬스케어 등 최신 기술 동향과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AI 비즈니스 모델 및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다.

컨퍼런스와 연계해 15일부터 17일까지 AI혁신기술 전시회인 'AI 테크플러스(TECH+) 2025'도 열린다. 이곳에서는 ▲AI 반도체 ▲컴퓨팅 ▲클라우드 ▲드론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이 인공지능 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I 혁신이 모든 분야에서 물결처럼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이번 학술회의는 '광주의 길'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역량을 결합해 AX 실증벨리 조성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반드시 성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 "마늘·양파·보리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

농식품부, 마늘 품목 13일부터... 양파·보리 20일부터 가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마늘 품목에 대해,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다만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 한한다.

이 보험은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만 보상했던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강화한 상품으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이 상품을 전국으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 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므로, 마늘·양파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효과적인 농가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구축" 시민 열기 12만명 돌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일까지 사업계획서 공모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에 12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열기가 모아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사업에 제출할 시민 서명운동에 지난 2일 기준 온라인 1만3578명·오프라인 11만1055명 등 총 12만4633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집계까지 포함하면 15만명은 넘어 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광주 시민 10명 중 1명은 서명에 동참했다.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을 댓글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가 광주에 들어서기를 응원했다.

한 시민은 "광주를 AI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AI컴퓨팅센터가 광주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약속을 지켜달라"고 건의했다.

자신을 미래에서 왔다고 밝힌 한 시민은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축하한다"며 "광주 AI 중심도시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뛰다"고 글을 남겼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생태계 혁신성장의 필수 기반시설로 정부는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치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를 2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돼 지분 구조를 공공지분 51%,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 등 공모요건을 조정해 3차 공모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제출된 기업 등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유치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지난 2023년 11월 국가AI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AI데이터센터는 노트북 약 50만대의 업무를 1초에 할 수 있는 88.5PF, 저장 용량은 1TB 하드디스크 10만개에 해당하는 107PB를 갖추고 있다.

또 엔비디아 2H100 2000장을 확보해 지난해 873곳의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 인공지능 제품 실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미래차 자율 주행 성능 등을 실제 도로 환경에서 실증 할 수 있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도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은 인공지능사관학교 등을 통해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AI영재고도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에 앞서 시민의 유치 열기가 반영된 서명도 정부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 광주시, 자동차부품 '외국인기능인력 비자' 시범운영

### 법무부, 금형·성형·용접분야 취업비자(E7-3) 도입... 2년간 시범사업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 도입을 위한 취업비자(E7-3)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금형·성형·용접 분야에 외국인 기능인력을 시범적으로 도입,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경북·충북·충남 4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1차년도인 2025년에는 전체 100명 중 광주에 40명이 배정되고, 2차

년도 배정 규모는 1차년도 성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7-3 비자는 국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일반기능인력 취업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E7-3 비자는 조선업, 항공기,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등 일부 산업에만 적용됐으나 자동차부품제조를 위한 금형·성형·용접 분야는 도입되지 않았다. 최근 자동차 제조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함에

따라 비수도권 30인 이상 300인 미만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며, 광주시는 지난 9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16개사 122명의 인력 신청을 받았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0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외국인 인력의 기량검증을 실시한 뒤, 수요기업에 총 40명을 배치해 올해 안으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영길 기자

주유소 기름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음 주 휘발유 가격은 약세를, 경유 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63.2원으로 직전 주 대비 1.9원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0.0원 오른 1725.2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2.0원 상승한 1633.1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상승... "경유도 소폭 오른다"

1636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672.9원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535.6원으로, 직전 주보다 2.6원 비싸게 판매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성사로 하락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 약화, 예상보다 완만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증산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65.9달러로, 직전 주 대비 1.1달러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0.4달러 내리간 76.7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1.3달러 내리간 88.4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유가를 고려하면 다음 주 국내 주유소 제품 가격은 휘발유가 약세, 경유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